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013년 부활절 입교교육이 23일(토) 오후 2시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저녁 7시 30분 교육관에서 고난주간 기도회가 열립니다.

교회학교에서 사용할 사무용 칼라프린터와 진공청소기를 구합니다. 잘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 있다면 기증해주세요.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신앙실천을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사 43:16~21 / 시 126
빌 3:4b~14 / 요 12:1~8

막 13:32-37

오늘 식당 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왕영순 정복순 이성범
 다음주 식당봉사 : 찬양대원
 오늘설거지봉사 : 홍순구 박해남 김영아 정운성 서효진
 다음주설거지봉사 : 이종배 고정림 홍순구 김한솔 윤수연
 떡 대 접 : 민병배 문현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의 빛이 있기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감사함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가야할 곳을 바라보며 깨끗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봄의 문턱에서 전쟁과 죽음의 소식만이 무성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며 안전을 무시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경수 김명순 이교영 김상근 최선미 김수진 김용길 최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정애 김종술 박미란 김지호 전해리 김필순 류선형 박창운
 허정윤 안세희 윤미경 윤수진 윤주원 최윤선 이광섭 이인웅 오송경
 이재문 이정은 이주은 이진영 한양미 이현순 임주빈 최현옥 장미란
 정수복 정두리 정선희 정현모 정현수 조병주 조수아 차혜심 노미향
 최철수 곽권희 추현영 한상경 허호엽 박성실 황현성 이오복 무명2

감사헌금:

강순배 권미숙 김용길 최영혜 박은경 유경순 김훈동 윤수진 윤주필
 이유일 김미희 이재문 이호현 전 용 정우선 차혜심 최중영 최현옥
 최현정 한창희 홍성식 이유리 홍순복 무명

녹색꿈헌금:

김성한 조영순 김인석 이선화 박미연 이애리 이진영 한양미 정두리
 홍순복

생일감사헌금:

조항미 최미자

장혜숙	백혜숙	정두리	박영희
노순옥	박성희	박성희	박재란
김재흥	최경미	정복순	이재문
장영숙	신영신	박경원	최종미
정경례	진정숙	안정숙	문금석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복순
권미숙	박미영	허정윤	방금숙
이순정	김금순	김금순	이봉옥
이형숙	윤수진	구성실	김재광
안홍숙	오현정	이수정	김명희
정영선	서정순	교회	정영선
박혜경	조항미	이기분	정현선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마음으로 읽는 글

소

소의 커다란 눈은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한데
 나에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소가 가진 말은 눈에 들어 있는 것 같다

말은 눈물처럼 떨어질 듯 그렇그렇 달려 있는데
 몸 밖으로 나오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마음이 한 움큼씩 뿔뿔히 나오도록 울어보지만
 말은 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수천만 년 말을 가두고
 그저 꼼벅거리고만 있는
 오, 저렇게 순하고 동그란 감옥이여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서
 소는 여러 번 씹었던 풀줄기를 배에서 꺼내어
 다시 씹어 짓이기고 삼켰다간 또 꺼내어 짓이긴다

- 김기택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신진식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허명을 버리고 순수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이름을 얻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선교회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성실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재훈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한완식 장로	권미정 집사 임주빈 집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정한구 박효선 왕영순 김금순
	헌금위원	김인걸 이순정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하느님의 새로운 모험, 교황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모험이 시작되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직무수행 능력이 스스로 의심받을 때는 언제나 교황직무마저 중도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관례를 만든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결단이 교황좌의 대륙이동을 낳았다. 교황의 중도 사임은 베네딕토 교황이 지난 8년 동안 행한 업적가운데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으며, 권위적인 교황 종신제의 틀에 균열을 일으킨 모험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새 교황이 선출됨으로써, 가톨릭교회는 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제3세계로 중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새로 선출된 교황인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지상의 하느님 백성은 새로운 시대의 기운을 흠뻑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시대의 징표는 가난의 영성에 기초한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요한 23세 교황이 열어놓았던 가톨릭교회의 창문이 서서히 닫히며 호흡곤란이 일어날 즈음에 문득 하느님께서 유럽 바깥에서 그 창문을 밀어젖히고 들어오셨다. 아직 미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사소한 발걸음일망정 업신여길 필요는 없다. 프란치스코 역시 자신을 ‘작은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던가. 콘클라베에서 요한 23세를 교황으로 선출했을 때, 그분이 공의회를 소집하리라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일은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숨은 의도는 한 걸음 뒤에 드러난다.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 이주민 출신으로 철도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난 새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의 소토 일 몬테의 소작농 가정에서 태어난 론칼리 추기경이 베네치아 대교구장을 역임했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을 지냈으며, 두 분 모두 우연히도 76세에 교황좌에 올랐다. 요한 23세 교황이 세례자 요한과 같은 예언자적 품모와 제자 요한과 같은 다정한 품성을 지녔듯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학적으

로는 비교적 보수적이지만, 청빈하고 사회정의에 대한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예수회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에서 이 대륙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이라며 분배정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가 1968년 메데인에서, 1979년 푸에블라에서 천명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결정에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새 교황은 동성애와 낙태문제 등과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사제를 비판한 적도 있었고, 콘돔에 대해선 에이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론칼리 추기경(교황 요한 23세)이 베네치아 교구장 시절에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던 곤돌라를 타고 다녔듯이 베르골리오 추기경(교황 프란치스코)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의 대주교이면서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다. 해외 여행 시에도 비행기의 이코노미석에 앉았으며, 추기경 의복도 전임자의 것을 재활용할 만큼 검소하고 청빈하다. ‘프란치스코’라는 교황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입증하듯이, 새 교황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일 교황으로 선출되더라도 교황을 축하하기 위해 로마로 여행하지 말고 대신에 그 돈을 가난한 이에게 기부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선출 직후 흰 옷을 입고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나와서 군중들에게 축복을 건넨 뒤 “좋은 저녁입니다”라는 다정한 말로 첫 인사를 전했다. <사목헌장>의 첫 구절처럼 새 교황을 통해 가톨릭교회가 인류의 슬픔과 번뇌를 씻어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그리스도 신앙이 다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진리로 되살아나기를 바란다.